

농어촌 기본소득 ‘미온적 대응’ 반박

임실군, 예비 신청서 총 100페이지 이상 분량 등 적극 준비 “통계적 지표 특성상 불리”

임실군은 최근 일부에서 “임실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의 긴급 설명 자료를 배포했다.

군은 20일 긴급브리핑을 갖고 “임실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추진 발표 후, 공모 대응 설명회 추진, 시범사업 도입 서명운동, 시범사업 대상 선정을 위한 인구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전 준비를 마쳤다”며 “해당 공모사업에 대해 예비 신청서 30페이지, 증빙자료 8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등, 철저한 절차를 거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고 밝혔다.

실제 군은 시범사업 공모 전담 TF팀을 구성하여, 이를 중심으로 기획감사실과 문화관광국, 복지환경국, 산업건설국 등 모든 부서가 참여한 실무협의회를 수차례 개최했다.

또한 사업 계획과 재원 조달, 주민 참여 방안 등을 치밀하게 검토하였으며, 공모 탈락의 주요 요인이 행정의 미비가 아니라, 일부 정량평가 항목에서 높은 지수를 받아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강조했다.

정부 평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 지역총생산(GRDP) 및 지역발전지수(RDI)는 타 군에 비해 불리한 정량 지표로, 임실군의 1인당 GRDP는(통계청 발표 2022년, 최근) 전북 도내 4위이



임실군은 최근 일부에서 “임실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의 긴급 설명 자료를 배포했다.

며, 군부담 평가 시 완주에 이은 2위로 도내 평균을 상회한다. 또한 RDI(지역발전)지수도 255개 자치단체 중 130위권으로 도내 군부 상위권으로 평가받았다. 이러한 결과는 임실군이 상대적으로 인구 규모가 작고 산업기반이 제한적인 여건 속에서도 균형 있는 성장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음을 보여주는 수치적 근거다.

또 일부에서 인구소멸지수를 기준으로 임실군의 유리함을 강조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평가에서는 ‘인구감소지수’가 정량 항목으로 사용되었다.

군은 인구가 적고 고령화율이 높은 탓에 인구감소지수 부문에서는 타 시군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즉, 이는 행정의 소극성 문제가 아닌, 통계적 지표 특성상 발생한 불리 요인이다.

군은 “임실군이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는 일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객관적 수치와 행정적 노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체계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대응했음을 명확히 밝히고,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임실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으로 판단하고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군민의 소득 안정과 지역 활력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해 군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 전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이 20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서 전국 49개 군 단위 자치단체중 최종 7곳에 선정되며, 기본소득 선도지역으로서 위상을 일궜다. 전북에서는 순창군이 유일하다.

순창군, 농어촌 기본소득 선정

2026년부터 모든 군민에게 매달 15만원씩 2년간 총 360만원 지급

순창군이 20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서 전국 49개 군 단위 자치단체중 최종 7곳에 선정되며, 기본소득 선도지역으로서 위상을 입증했다. 전북에서는 순창군이 유일하다.

이번 선정으로 순창군은 2026년부터 모든 군민에게 매달 15만 원씩 2년간 총 360만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약 2만 7천여 명의 군민으로, 연간 487억 원, 2년간 총 973억 원 규모의 예산이 지역경제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는 지역 내 소비 확대와 경제 선순환 구조 형성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전국 49개 자치단체가 공모에 참여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순창군은 기본소득 추진을 위해 지난 5월부터 군수 주재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전국 최초로 전담조직 신설, 관련 조례 제정, 용역 및 전문가 자문,

주민 의견 수렴 등 체계적인 준비를 해왔다. 이러한 선제적 대응과 행정 추진력, 그리고 군민의 높은 참여 의지가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그동안 생애주기별 보편적 복지 정책을 통한 행정적 기반과 단순한 현금성 지원이 아닌 농촌유학 등 정착을 유도하고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등 지역경제 선순환 모델을 설계한 것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성과는 단순한 공모 선정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3년간 순창군이 꾸준히 추진해온 보편적 복지 정책의 결실이자, 향후 농어촌 미래를 변화할 중요한 전환점이기 때문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은 군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값진 성과”라며, “실행 방안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해 온 만큼, 농어촌 기본소득 성공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소식 통

남원시, 독감·코로나19 예방접종 기간 다르게 추진

남원시 인플루엔자(독감)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대상자별, 접종 기관별로 기간을 달리하여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65세 이상 어르신과 6개월 이상의 면역저하자, 감염 취약 시설 입원·입소자만 관내 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어르신(1960. 12. 31. 이전 출생자)은 병원에서 10월 15일부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시작했으며, 코로나19 예방접종과 동시 접종도 가능하다.

보건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10월 29일부터 시작, 남원시 주민등록자 중 60~64세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무료로 접종을 실시하고, 이외 일반시민(남원시 주민등록자 중 14~59세) 유료 접종은 11월 3일(월)부터 시작하며 접종비는 10,000원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의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환영

순창군의회(의장 손종석)는 20일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에 순창군이 최종 선정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는 성명을 발표했다.

순창군의회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이번 선정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이 아니라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군민의 삶에 안정감을 더할 혁신적 시도”라며 “순창군민의 공감과 참여가 이뤄낸 값진 결실”이라고 강조했다.

순창군의회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사업 추진의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 △군민 의견 수렴을 통한 제도 보완 △인구정책과의 연계 지원 등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순창군의회는 “농업과 농촌이 순창의 근간인 만큼, 이번 사업이 모든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자양분이 되길 기대한다”며 “군민·집행부·의회가 한마음으로 협력해 더욱 살기 좋은 순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 방문의 해’ 임실N치즈축제 현장서 대대적 홍보

다채로운 이벤트로 큰 호응

임실군이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닷새간 임실치즈페스티벌 일원에서 열린 ‘2025 임실N치즈축제’에서 임실군청 홍보담당관 주관의 다양한 참여형 홍보 이벤트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2025 임실 방문의 해를 맞아 그 어느 해보다 색다른 볼거리와 즐길거리, 체험거리를 마련한 축제장에서 홍보담당관은 축제 현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체험형 홍보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마련해 축제장의 열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행사장에는 임실 방문의 해와 고향 사랑기부 홍보부스 등 두 개의 홍보관이 설치되어 임실군의 매력과 가치, 지역사랑 실천의 의미를 함께 알렸다. 먼저, 임실군 공식 SNS 댓글 응원 이

벤트와 현장 구독 이벤트를 병행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더불어 관광객이 임실의 주요 명소를 직접 방문하며 즐길 수 있는 ‘모바일 스탬프 투어 이벤트’를 진행했다.

특히, 축제 기간 고향사랑기부 홍보부스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 홍보활동을 통해, 총 123명의 기부자로부터 1,200만 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금했다. 특히, 축제 현장에서만 수렴 할 수 있는 ‘무가당 요거트·숙성 치즈’ 한정판 패키지는 임실군 답례품의 가치를 높이고, 기부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특별히 제작된 것으로 현장 홍보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뒀다.

군은 이와 함께 ‘임실엔TV’ 유튜브 구독 캠페인, 임실 관광 리플릿 배포, 실시간 SNS 콘텐츠 홍보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홍보를 이어갔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구강이동진료 차량 호응

남원시가 운영 중인 ‘찾아가는 구강이동진료 차량’이 읍·면 지역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 8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구강이동진료 차량은 의료 접근성이 낮은 농촌 지역과 복지시설을 직접 찾아가 무료 구강검진과 예방 중심의 치과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민들의 구강 건강 증진에 앞장서고 있다.

이 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장애인, 농촌지역 주민 등 의료취약계층의 구강보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또한 어린이 구강건강을 위한 예방서비스로 학교를 방문해 ‘치아 홈메우기(실란트)’ 시술도 진행하여 성장기 아동의 충치 예방에도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N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학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